

‘北 과민증’ 미국, 이젠 사이버 공격 걱정

美 NBC 해킹 가능성 보도 정보당국 “공격 능력 충분” 석달전 랜섬웨어 연루 의심도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긴장 고조 국면에서 사이버 공격도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 NBC뉴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료들과 외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해킹 능력을 보여줬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북한은 지난 2014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회화화한 영화 ‘인터뷰’의 제작사 소니 픽처스를 해킹해 이런 능력을 처음으로 보여줬고,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 6월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북한의 해킹 그룹 ‘히든 코브라’를 지목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개 기업이 아니라 미

국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사이버 공격 기술을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미 정보당국 관계자는 이 방송에 “북한은 소니 해킹 때 보여줬던 것처럼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을 가할 능력이 있다”며 “미국이 사이버 보복 공격을 할 능력은 충분하지만 적의 공격에는 여전히 취약하다”고 말했다.

미 사법 및 안보 당국은 지난 6월 펠렌 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미국의 언론, 항공우주, 금융, 중요 인프라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북한의 집중 타겟은 금융 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을 해킹해 정권의 유지와 핵·미사일 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8100만 달러(약 923억 원) 도난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히든 코브라가 지목된다.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의 공동창업자인 드미트리 알페로비치는 “얼마 전부터 북한이 긴장 고조에 대한 보복으로 사이버 공격을 택할 것을 염려했다”며 “특히 우리의 금융 부문이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사이버 보안업체 ‘파이어아이’의 존 헬트윅스트 정보팀장도 “그들은 사이버 능력을 통해 돈을 훔치고 있다”며 “군사 정보를 훔치는 것도 분명하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전 세계 방위사업 계약자들을 타겟으로 한 결과 해킹이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5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23만 대 이상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 공격과도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미 정보당국은 아직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북한이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중요 기간시설을 해킹으로 마비시킬 수 있다는 염려도 있다. 북한이 2014년 12월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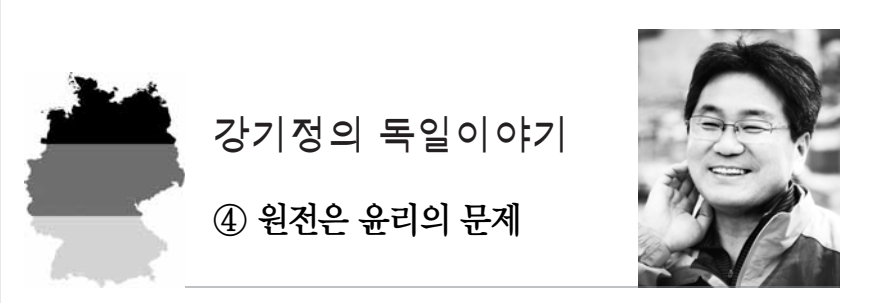
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저지른 해킹 사건이 그 근거다.

다만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원전의 중요 기능에 직접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제임스 루이스는 “(북한의 공격은) 대부분 데이터 교란”이라며 “데이터를 스스로 보호하지 못한 사람과 기업이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헬트윅스트 팀장도 “그들은 비(非)사용 네트워크의 기능을 바꾸거나 중요 인프라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할 수 있고, 무력 충돌 시기에 경고 문자메시지를 뿌릴 수 있다”고 북한의 공격 범위를 예상했다.

그러나 2004년 탈북한 북한의 컴퓨터 전문가 김홍광 씨는 NBC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며 “언젠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강기정의 독일이야기
④ 원전은 윤리의 문제

“어떤 에너지도 축적을 남깁니다. 원전은 에너지 문제를 넘어 도덕의 문제입니다.”

핵발전 부담은 후손의 몫

베를린 자유대학에 머무는 동안 메르켈 정부의 원자력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미란다 A. 슈로이어 교수는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다. 지금은 뮌헨 공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당시 미란다 교수는 베를린자유대 환경정책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었고 새정부 들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독일 탈원전 정책의 함의를 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미란다 교수. 만남의 첫 일성으로 그녀는 ‘원전 문제의 윤리적 의미’를 이야기했다.

자연재해만은 아니라는 지적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2009년에 ‘기민 자민당 연립정부’는 신규 원전을 허용하지 않되 원자력의 수명을 12년 연장하기로 한다. 재생에너지로 가는 가교에너지로 원전에너지로 쓰러진 것이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자 메르켈은 즉시 수명연장정책을 폐기하고 윤리위원회를 구성, 나머지 원전도 2022년까지 모두 폐쇄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낸다.

독일 국민 절전 큰 역할

“원전의 경제성을 말하지만 발전소 해체와 폐기를 처리 비용을 포함시키면 가장 비싼 에너지로 돌변합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싸지도, 안전하지도

시에라리온 최악의 산사태...400명 사망 코로나 대통령, 국제사회 긴급구호 요청

600명 실종...사망자 늘어날 듯

지난 14일(현지시간) 집중호우에 따른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현재까지 약 40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종자가 600명에 육박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에라리온의 현지 검시소는 산사태가 발생한 프리타운 인근 리젠트 지역에서 시신 약 400구를 수습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날 프리타운 인근 리젠트 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앞서 외신에서는 300여 명이 숨지고 600여 명이 실종됐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시신 수습 작업이 계속되면서 사망자가 늘었다.

어니스트 바이 코로나 시에라리온 대통령은 리젠트 사고 현장을 찾아 “이 나라는 지금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며 국제사회에 긴급구호를 요청했다.

현장 수색검시관 세네 톱부야는 로이터 통신에 “수색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거의 400구의 시신을 찾았다. 500구 이상을 수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번 산사태는 최근 20년간 아프리카에서 벌어진 재해 중 최악의 참사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유엔은 시에라리온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페인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콜레라



와 장티푸스 등 수인성 전염병의 발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현재 시에라리온 사태에 대한 긴급대책이 실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 지역 사무소가 시에라리온 정부를 도와 구조작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부상자들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생존자들에게 식량과 물, 담요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제이주기구(IOM)도 15만 달러(1억 7000만원) 상당의 긴급 구호자금으로 시에라리온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물난리에 주민 발 동동 집중호우에 따른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시에라리온 수도 프리타운 외곽 지역에서 한 주민이 사고 현장을 설명하는 모습이 실린 영상이 지난 14일(현지시간) SNS에 올랐다. 이 산사태로 현재까지 약 400구의 시신이 발굴되고 실종자가 600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현장 관계자는 500구 이상의 시신이 수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역민 공론화로 탈핵 이후 대비를

“핵발전소로 쟁길 이익은 현 세대가 누리지만 부담은 후손의 몫입니다. 위험천만한 핵폐기물을 다음 세대에 전가하는 것은 심각한 윤리적 문제입니다.”

원전 문제를 효율성 차원으로만 접근하지 않았다. 메르켈 총리가 의료나 인체공학 분야에 있어 온 ‘윤리위원회’란 명칭을 에너지 분야에 도입한 것과 같은 취지의 이야기였다.

사실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먼저였다고 한다. 25년 전, 독일남부까지 날아온 체르노빌 방사능 먼지는 감상선량 급증 등 심각한 문제를 남겼다. 독일 전역에 탈핵 운동이 불길처럼 번졌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99년 ‘사민당 녹색당 연립정부’가 정책으로 담아냈다.

가장 비싼 에너지 원자력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일은 분단 상태였고, 곳곳에 원전이 많이 흩어져 있었어요. 90년대까지 냉전이 계속됐기 때문에 말 그대로 원전이 화약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체르노빌 이후 시민들은 이러한 부분까지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전이 재앙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윤리적이기도 않아요.”

미란다 교수는 에너지 생산문제와 더불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놓쳐선 안된다고 말한다. 독일의 경우, 1990년부터 2012년 사이, 경제성장 폭은 커졌지만 전체적인 전력소비는 오히려 줄었다고 한다.

실제로 독일에서 지내는 동안 느낀 바가 있다. 독일 가정에서는 대부분 작은 냉장고를 쓴다. 필요한 식료품을 매일 조금씩 사다 쓰니 전력소모가 큰 대형냉장고가 필요 없는 것이다. 냉방방도 최소로 한다. 세탁기도 한 시간 이하로 세팅이 맞춰져있다. 출근길 등굣길에도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애용한다. 창틀에 설치된 열차단막 하나에서도 에너지 사용에 대한 일상의 절제력 같은 게 느껴진다.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기업의 노력 역시 눈여겨 볼만하다.

체르노빌에서 독일까지의 거리는 1100km, 공교롭게도 후쿠시마에서 한국까지의 거리도 같다고 한다. 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인 영광에서 광주는 직선거리로 40km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전문가들과의 소통의 장을 자주 가지려 한다. 위험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안은 위험을 드러내고 공론화하는 것이라는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의 말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정치인·전 국회의원>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치평동 삼성화재인근 중심상가
조청가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3억**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건물 6008평
감정가 **25,143,000,000**
최저가 **17,600,000,000**

【법원 경매/공매】

토 지	
▶나주 봉황면 황룡리 생산관리지역 과수원 반암마을인근 토지 3251평	감정가 270,000,000 최저가 216,000,000
▶화순군 북면 서유리 서유마을인근 잡종지 토지 3473평	감정가 183,000,000 최저가 128,000,000
▶광산구 박호동 임야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토지 13200평	감정가 192,000,000 최저가 192,000,000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면사무소인근 자연녹지 도시계획구역 토지 218평	감정가 34,000,000 최저가 34,000,000

근 린 시 설	
▶남구 송화동 광주대 인근 토지 138평 건물 492평	감정가 1,227,000,000 최저가 859,000,000
▶장성 삼계면 주산리 백산마을인근 토지 176평 건물111평	감정가 387,000,000 최저가 271,000,000

공 장	
▶광산구 장덕동 하남일반산업단지 내위치 토지781평 건물518평	감정가 1,786,000,000 최저가 1,250,000,000
▶장성 서삼면 송현리 환경에너지 토지 1361평 건물 372평	감정가 938,000,000 최저가 420,000,000
▶나주 왕곡면 송죽리 계획관리지역 분포 쓰레기처리 토지 7693평 건물 1548평	감정가 2,928,000,000 최저가 2,050,000,000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